



Vision Report I

비전, 개혁, 재정의 삼위일체를 꿈꾼다

멘토와의 1일 데이트

전자공학과 박종태 교수와의 데이트

Brand UI

취업, 우리는 UI Elite Program으로 통한다

Passion of UI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젊음

학과 탐방 24시

디자인학부

캠퍼스 갤러리

2012 인천대학교 축제 현장



**2013년 1월,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Designed by - eeppop 02.514.7987



GCF 사무국 유치 성공, 인천대학교에도 녹색물결 가득



지난 10월 20일 UN 녹색기후기금(GCF :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인천대학교는 그 동안 GCF 사무국 유치를 지원하며 'I-Market'(사랑나눔 한마음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앞으로도 인천대학교는 GCF 사무국과 연계한 6대 핵심전략 사업의 추진을 통해 그린 캠퍼스 조성 등 친환경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CONTENTS

인천대학교의 현재와 미래

- 04 Vision Report I 비전-개혁-재정의 삼위일체를 꿈꾼다
- 06 Vision Report II 국립대 법인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UI, PRIDE

- 10 프리티어 UI 해외창업현장탐방 다녀온 예비 창업생들 MIT-GSW 국제 세미나 인기상 수상, 이대현 군
- 12 Pride of UI 인천대학교 팬싱부 이육재 감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병훈 교수
- 14 멘토와의 1일 데이트 전자공학과 박중태 교수와의 데이트
- 16 Brand UI 취업, 우리는 UI Elite Program으로 통한다



발행일
2012년 12월 3일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2-1)
TEL. 032.835.8114

UI, WINDOW

- 18 UI, Poject Smart Water Grid 연구단 출범 기념 심포지엄 개최
똑똑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Smart Water Grid!
- 22 Passion of UI 뜨거운 열정으로 도전하는 젊음
- 26 학과 탐방 24시 디자인학부
- 28 우리 지금 만나 UI 금융연구회
- 30 캠퍼스 갤러리 2012 인천대학교 축제 현장
- 34 UI is Now
- 36 발전기금 소개
- 37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 39 발전기금 출연자



변화의 지렛대 II

단대와 학과가 변화의 주체가 된다.

학문분야의 다양성을 배려한 경쟁주의

- 학과 단위로 독립·선출을 통한
- 학과 스스로 성과물을 제시·평가에 대한 책임
- 공익을 지향한 상사적 구조조정

학문의 역할 확대

- 학과 단위 연구·개발·사업의 집중화
- 대학원 단위 연구·개발·사업의 집중화
- 대학원 단위 연구·개발·사업의 집중화
- 대학원 단위 연구·개발·사업의 집중화

대학본부의 역할

- COO 운영(부총장)
- COO 재직, 예산, 기획, 지배구조
- COO 기획, 전략, 평가, 홍보, 대외관계
- COO 노·공무원청
- COO 노·공무원청
- COO 노·공무원청, 서울경제, 영남대



11월 12일 복지회관 2층 소극장에서 UI 비전수립 TF팀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국립대학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 인천대학교는 조직경영의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해 지난 7월 UI 비전수립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TF팀이 구성된 후 4개월,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내년 3월, UI 송도비전 선포 예정

인천대학교는 내년 1월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인천대학교는 UI 송도비전(가칭) 수립에 여념이 없다. 대학의 틀이 바뀌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을 느낀 인천대학교는 지난 7월 UI 비전수립 TF팀(이하 비전팀)을 구성하고 현재 내년 3월 비전선포를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팀은 팀장인 이찬근 교수를 포함해 총 7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비전수립의 주요점은 attainable, focused, qualitative, inclusive 등 4가지에 맞춰져 있다. 특히 inclusive를 위해 7명의 팀 교수를 비롯해 5명의 자문교수, 15명의 협력연구교수들이 모여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교수 200명, 직원 50명의 심층인터뷰와 학생전략기획단의 집담회(재학생 200명)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률은 약 80%이다. 비전팀이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전팀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다섯 가지 지렛대를 구상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이다. 둘째, 단대와 학과가 변화의 주체가 되자는 것이다. 학문분야의 다양성을 배려한 경쟁주의를 원칙으로 학과 간의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학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한다는 뜻이다. 셋째, 취업의 질과 양을 목표로 교육전반을 리엔지니어링하여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것이다. 넷째, 연계와 융복합을 조직의 DNA로 키우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전임교수

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2020년까지 교수의 1/10을 외국인 전임교수로 채움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인천대의 개혁과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자는 것이다. 이는 ▲교육 리엔지니어링의 단행 ▲2020년까지 교수 연구실적 높이기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의 발돋움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는 행정서비스 구축 등 인천대학교의 개혁추진 의지와도 맞물리는 사항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기점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비전팀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인천대학교의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킴으로써 'ambiguous middle way'가 아닌 'beautiful middle way'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 '지역밀착', '국제화', '교육혁신'이라는 키워드 아래 ▲실사구시의 이념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한다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과 송도의 국제화를 선도한다 ▲교육혁신으로 지역의 인재를 세계의 인재로 키워낸다 등의 이념을 구상해 놓은 상황이다. UI 송도비전 발표시점인 2013년 3월까지 이제 약 4개월이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인천대학교 비전팀은 법인화 전환시점에 앞서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인천대학교의 밝은 미래가 고스란히 담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비전-개혁-재정의 삼위일체'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비전수립 과정이 훗날 인천대학교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Mini Interview
이찬근 교수(UI 비전팀 팀장)

- Q UI 비전수립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현재 저를 포함해 7명의 교수이며, 대부분 교수경력 10~15년 사이의 소장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소장 교수님들이 조금 더 깨어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했죠.
- Q 현재(11월 중순 기준) 비전수립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A 중간 보고회 때 말씀 드렸듯이 심층인터뷰와 집담회는 약 8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향후 의견수렴을 위해 쟁점 별로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데, 12월 초까지는 모두 끝낼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를 초청해 토론회도 가지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비전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마 대략적인 틀은 1월 말이면 다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Q 비전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진정성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천대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새로운 비전이 수립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A 학생들은 더욱 내실화된 커리큘럼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은 물론,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도 덜 수 있게 될 겁니다. 교수들 역시 교육과 연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변화될 것이고, 학내 전반적으로 업그레йд 되겠죠.
- Q 이번 비전수립 작업의 목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쉽게 말해 비전과 개혁, 재정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통성 있는 비전의 도출을 통해 자발적인 개혁의 틀을 만들고, 그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합의를 전제로 하나씩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대 법인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산하 6개 분과 및 실행위원회별로
활발한 논의 진행중

지난 12월 28일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 후 본회의에서 의결(12월 30일)되고 법인화 작업이 본격화됨으로써 드디어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힘찬 뜻이 올려졌다.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두고 있는 인천대학교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개의 분과위원회별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국립대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 남짓. 법인화를 위한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각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자.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4년 7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에만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인천지역에 국립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2005년 인천대 국립대 전환 인천시민 130만 명 서명을 시작으로 2009년 국립대법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 타기 시작해 결국 7년 여만에 국립대법인화라는 결과를 얻었다.

인천대학교는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주요 과제로 ▲국립 인천대학교의 비전과 목표 설정 ▲교육 및 연구 발전/활성화 마련 ▲교수 인사제도 및 성과관리 방안 ▲학생/복지/권의 증진 및 장학제도 구축 ▲직원 인사제도 및 성과관리 방안 ▲재정 및 회계 운영제도 구축 ▲대학 행정조직 재설계 및 업무체계 구축 등의 7가지로 정하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7월 13일 위촉된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성을 총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는 업무를 지원하는 설립준비실행위원회를 두었다.

설립준비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최병길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삼아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분과위원회별 업무 총괄 및 기획 조정, 교내·외 소통 및 홍보, 교내 의견수렴 방안 수립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관 초안 논의 ▲분과별 주요 쟁점사항 논의 ▲법인 전환에 관한 설문사항 논의 ▲교내·외 소통 및 홍보 논의 등이 그것이다.

앞서 설명한 실행위의 업무는 다시 6개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교육·연구분과위원회 ▲교수분과위원회 ▲학생·복지·권익분과위원회 ▲직원분과위원회 ▲재정·재산분과위원회 ▲운영체제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맞춰 여러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들은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각 분과 업무와 관련된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법인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연구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목표와 이념 및 비전에 관한 논의
- 국립대학법인의 목표와 사업 정관 조항에 대한 논의
- 교육연구위원회 및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정관 및 운영 규정 논의
- 기초학문육성 방안 논의
- 법인 전환에 따른 학칙 및 각종 위원회, 일반 학사규정 검토
- 강의평가 및 연구비 관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주요 논의사항

- 대학법인의 목표 및 사업 정관 조항에 대한 논의
- 교육연구위원회 정관 및 규정(안)에 대한 논의
-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안)에 대한 논의
- 학칙 및 일반 학사 규정 검토, 초안작성 작업
- 강의평가 및 연구비 관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교육연구위원회 신설
- 기초학문진흥위원회 신설



교수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교원관련 정관 초안 마련
- 교원 인사관리 방안 마련
- 교원 연구년제 제도 개선
- 교원 보수 체계 마련
- 교원 국외여행 지침 검토
- 교원 신분 전환 및 연금전환 기초조사

주요 논의사항

- 정관, 규정 검토 및 초안 작성 작업
- 교원 인사규정(안)에 대한 논의
- 교원 연구년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 교원 보수체계 검토
- 교원 국외여행 지침 검토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교원신분 : 공무원 → 법인 교원
- 직급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수업적관리 및 평가기준 : 2012년 11월경 기준 확정 및 규정개정 계획으로 법인화 후 추진
- 정년 : 65세
- 조교신분 : 교육공무원 → 법인 조교



학생·복지·권익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정관초안 및 관련규정 제·개정 마련
- 장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마련
- 학생 장학제도 개선방안 검토
- 학생자치활동 지원
- 생활관 운영규정 수정 및 보완
- 학생보건진료활성화방안 검토

주요 논의사항

- 학생복지위원회 운영체제 검토
- 정관에 학생과 관련된 규정 명기 검토
- 구성원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 제도 검토
- 학생복지 및 장학관련 조항 학칙 개정 검토
- 학생보건진료활성화 방안 검토

- 장애학생 시설개선 및 사회적 책무 수행방안 검토
- 성희롱·성폭력예방 운영규정 제정안 검토
- 국제교류 운영규정 및 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지침 수정 및 보완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체육진흥부 운동경기부 설치 : 8개 종목 → 10개 종목
- 의료공제회 제도 도입 : 보건진료소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혜택 확대 검토
- 장학복지위원회 심의기구 : 장학위원회 → 장학복지위원회 학생 참여



직원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정관초안 및 관련규정 제·개정 마련
- 직원 인사관리제도 개선 방안
- 보수체계 개선 방안
- 복무체계 개선 방안

주요 논의사항

- 규정 제정 작업을 위한 제반 사항
- 인사관리체계
- 보수체계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직원의 직종 4개(일반, 별정, 기능, 학사직) → 직군 3개(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 직원의 직렬 17개(행정, 교육행정, 세무, 별정, 사서, 전산, 공업, 시설, 통신, 기계, 전기, 간호조무, 운전, 방호, 위생, 전화상담, 열관리) → 6개(행정, 사서, 전산,

- 공업시설, 보건, 시설운영
- 직원의 직급 : 일반, 기능직(9개 등급)/별정직(4~7급 상당)/학사직(5개 등급) → 행정, 기술, 기능직(8등급)
- 직원 인사 심의기구 : 사안별 위원회 구성 → 직원인사위원회 상설 설치
- 직군, 직렬, 직급에 따라 보직 부여 → 직군, 직렬, 직급과 보직의 부여는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보직제도 미 실시 → 필요한 경우 전문보직제 실시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 미 실시 → 특정 지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 도입
- 직원 시보임용 미 실시 → 정규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앞서 6개월간 시보임용 실시
- 직무연수 및 공로연수 미 실시 → 직원의 경력개발과 업무능력 신장을 위해 대상자를 선발해 직무연수 실시,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공로연수 실시



재정·재산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정관초안 및 관련규정 제·개정 마련
- 재정 통합방안 및 세법관련 개정안 마련
- 공유재산 무상양여 추진
- 대학 수익사업의 운영방안 마련
- 기금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

주요 논의사항

- 정관 초안 마련
- 제규정 마련
- 재정 통합방안 마련
- 세법관련 개정안 마련
- 공유재산 무상양여 추진(양여대상 재산 파악,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천시와 협의 등)

- 대학 수익사업 운영방안 마련
- 기금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인천대학교운영기성회계, 특성화사업회계, 생활관회계 → 법인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회계 → 별도회계
- 회계방법: 단식회계 → 복식회계
- 재무경영 심의기구: 기획위원회 → 재무경영위원회, 평의회 → 이사회
- 기금운용: 해당부서 운용 → 기금운용위원회 총괄, 해당부서 운용



운영체제분과위원회

주요 기능

- 법인의 조직·직제 틀 마련
- 위원회 등 의사결정 체계 정립(각종 위원회의 기능조율 등)
- 행정조직 재구성
- 보직관련 제도 운영근거 마련
-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 법인설립 추진 각종 위원회 정보화 지원
- 관련 법인과의 관계 설정
- 정관 초안 작성
- 학칙/규정 제·개정 총괄

주요 논의사항

- 정관 제정을 위한 각 분과별 검토사항 정리
- 법인의 임원 및 이사회 관련

- 법인의 행정조직 및 직제관련
- 법인 내 주요 기관의 구성 및 권한 관련
- 기타 법인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검토

법인 설립 후 주요 변화(안)

- 최고 의사결정기구 : 평의회 → 이사회
- 총장 선출방식 : 22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후보의 공개모집 및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직선제 체제 →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 평의회 구성 : 교원 20명 → 교원, 교직원 포함 30명
- 내부감사 : 총무과 소관(전담부서 없음) → 직제규정 제정 예정
- 행정조직 : 4처 3본부 2실 27과 → 직제규정 제정 예정

해외창업현장탐방 다녀온 예비 창업생들

새로운 아이디어 찾아 중국으로 향하다

13억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 큰 시장규모만큼이나 기회 또한 무궁무진한 그곳에서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 찾기에 나섰다.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으로 35명의 학생들이 해외창업현장탐방을 다녀온 것.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온 3명의 학생들을 만나 보았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지원단과 결합하다

지난 8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재학생 35명과 함께 3박 4일간 해외창업현장탐방을 다녀왔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이번 해외탐방에 참여한 이지섭 군(전기공학과 4학년)과 마현규 군(컴퓨터공학과 3학년), 주소연 양(정보통신학과 1학년)은 중국탐방을 통해 생각은 깊어지고 시야는 넓어졌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지섭 군과 마현규 군은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기업인'답게 중국탐방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번 탐방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에 없는 창업 아이템들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냈다. 세 사람의 아이디어 역시 독특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지섭 군의 경우 중국 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중심에 전광판을 설치해 오늘 들어온 상품이나 시세, 주차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것을 스마트폰과 연계하는 아이템을 구상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다. 사실 이들은 창업이라는 목표보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일에 '홀릭된' 사람들이다. 그간 생각해 낸 아이디어들이 노트나 스마트폰 연습장 가득이지만, 그중에서도 주

주소연 양의 '베개 알람'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상품이다.

"기숙사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 알람소리가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안마 기능이 더해진 베개 속에 알람 기능을 탑재해 소리 대신 시간이 되면 머리를 마사지해 주면서 기상을 돕는 아이디어예요."

창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창업 아카데미와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값진 것임을 체감한 이들은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던 순간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각종 박람회 등을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들을 얻어간 이지섭 군. 그는 현재 스마트폰과 연계해 반려동물을 위한 자동 먹이 및 애완동물용 영화상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 완성단계에 와 있다. 마현규 군 역시 개인별 맞춤 운동법을 프로그램화한 상품으로 사업자등록증까지 나온 상태라고.

그저 그런 생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곁에서 밀어주고 이끌어 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있어 도전이 가능했다는 이들의 말처럼,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을 통해 인천대학교의 숨은 아이디어뱅크들이 무수히 발굴되길 기대해본다.



MIT-GSW 국제 세미나에서 인기상 수상한 이대현 군

좋은 아이디어와 자신감만 있다면 OK!

지난 4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MIT-GSW(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Global Startup Workshop)에서 이대현 군(무역학부 4학년)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 재치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대학생들을 압도한 이대현 군을 만나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



해충방지용 랜턴으로 세계무대에 서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에서 주관하는 MIT-GSW는 기업가정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으로,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역시 전 세계 35개국, 50개 대학에서 모인 약 4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선보였고 국내에서도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15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하지만 국내 참가자 중 본선에 오른 건은 이대현 군 뿐. 게다가 수상의 영광까지 안고 보니 그가 가진 특별함이 무엇이었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해충방지용 랜턴'이었어요.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 캠핑의 필수품인 랜턴에 별레가 기피하는 LED 파장과 향(구문초)을 탑재해 사용 시 해충까지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랜턴 상부에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해 건전지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했어요."

별레들이 싫어하는 색인 주황색과 노랑색을 빛으로 활용한 점

과 별레 퇴치제로 널리 알려진 구문초를 랜턴 안에 삽입한다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 하지만 무엇보다 이대현 군이 주목받았던 점은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관객 소통이었다고.

"유창한 영어실력은 아니지만 기술의 핵심을 자신 있게 발표했고, 또 관객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즐겁게 프레젠테이션 한 것이 인기상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에도 주눅들기보단 "Your question is good-!"으로 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대현 군은 현재 '해충방지용 랜턴'을 사업 아이템으로 해 '아폴론'이란 회사의 대표로 섰다. 보통의 23살 학생이라면 꿈꾸지 못할 일이었겠지만,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있어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사무공간이나 자금지원도 훌륭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회계사 분들과의 상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음을 몸소 보여준 이대현 군의 도전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15년 동안 인천대학교 펜싱부를 이끌어 온 수장(首長)

인천대학교 펜싱부 이욱재 감독

지난 8월 4일(한국 시간) 런던의 엑셀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루마니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흑자는 '한국 남자 펜싱 사상 첫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욱재 감독은 "메달의 색깔이 무엇이냐의 문제였지, 메달은 무조건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 오히려 약이 되어 단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팀을 이끈 이욱재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하지만, 인천대학교 펜싱부의 감독이기도 하다. 1997년 말 감독직을 수락해 2012년 10월 현재까지 인천대학교 펜싱부를 이끌고 있으니 벌써 햇수로 15년째다. 인천대학교 펜싱부는 1982년 창단했으나, 창단 후 몇 년 동안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탓에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부족했다. 하지만 현재는 펜싱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으로 꼽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국가대표를 은퇴한 이욱재 감독이 인천대학교에 부임한 후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 바로 '인성교육'이다. '운동부에서 웬 인성교육이냐'고 생각할 사람이 대다수이겠지만, 이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갖추어야 운동선수로서의 기본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성적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6명(1, 2, 4학년 각각 2명씩)의 펜싱부 선수들에게 학과 수업을 모두 듣게 하고, 운동은 모든 수업이 끝난 오후에 2시간 30분씩 실시한다. 처음에는 반신반

의하고 힘들어하던 선수들은 이제 공부에도 흥미를 붙이고 학과 친구들도 사귀면서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에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연습에 몰두하는 선수로서의 생활을 보내고 있다. 다른 선수들보다 운동 시간이 적더라도, 집중력이 높기 때문일까? 인천대학교 펜싱부의 성적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세계 대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열렸던 아시아 청소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개인 2위, 단체 3위에 오르며 인천대학교 펜싱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는 펜싱부이지만, 인천대학교에는 아직 전용 연습장이 없다. 때문에 선수들은 매일 왕복 2시간의 거리에 위치한 문학경기장을 오가며 연습하고 있다. 이욱재 감독은 "학내에 전용 연습장이 있다면 이동시간을 절약해 더욱 연습에 매진할 수 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전용 연습장이 생긴다면 선수들이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회체육이나 펜싱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함으로써 펜싱의 저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감독의 생각이다. 이욱재 감독에게는 꿈이 있다.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국가대표를 인천대학교에서 배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8년 동안 맡았던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도 내려놨다. 인천대학교 펜싱부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다. 선수들의 인성과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욱재 감독.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멋진 선수를 배출해내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꿈 많고 열정 가득한 물리학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병훈 교수(물리학과 92학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병훈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결과가 네이처 출판사가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다. 학창시절 잠자는 시간조차 반납할 만큼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푹 빠져 있었다는 그곳에 오늘의 결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꿈 많은 물리학도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는 학자로 자리매김한 김병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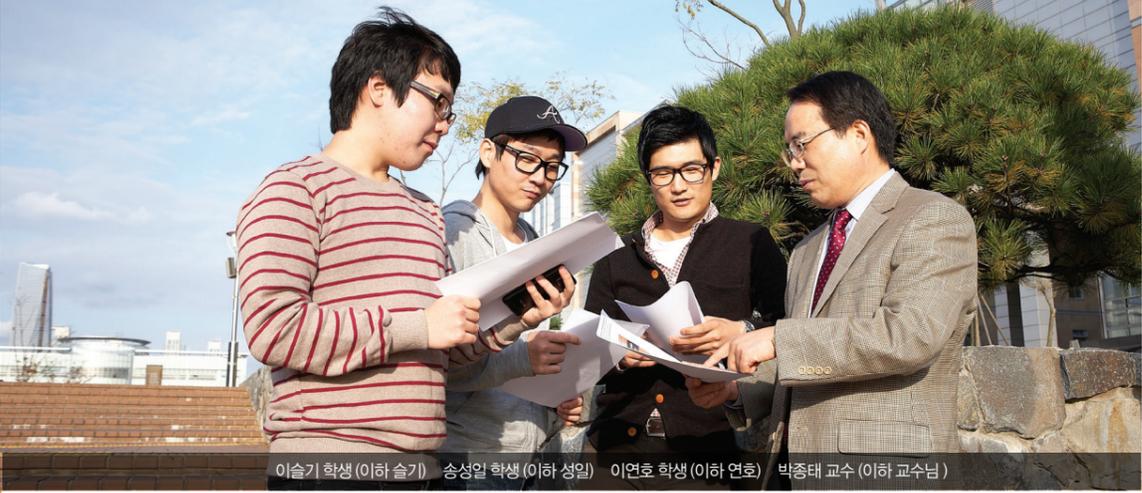
저비용 · 고효율 반도체 소자 구현의 발판을 마련하다

인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병훈 교수가 같은 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전용석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영우 교수, 서울대학교 홍성주 박사, 건국대학교의 이상욱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과 함께 개발한 기술은 수소가스를 이용해 공기 중에서 손쉽게 그래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핀 반도체는 강도가 강철의 200배, 전자이동도가 실리콘의 140배, 열전도율이 구리에 100배에 이르기 때문에 다양한 전자·반도체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를 통해 전도가 이뤄지는 'n형' 성질을 부여하려면 플라즈마 처리 등 비싸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김병훈 교수는 말한다. 때문에 연구팀은 탄소 결손이 있는 그래핀을 수소가스에 노출해 공기 중에서 분리된 수소가 결손부분에 달라붙게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n형 그래핀을 만드는 연구에 돌입, 이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이러한 특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결과로 그래핀의 수소저장 원리를 밝혀낼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그래핀을 반도체 소자에 응용하기 위해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효율 반도체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 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연구한 때문인지 이들의 논문은 네이처 출판사가 발행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에 게재되는 영광까지 얻었다. 인천대학교 재학시절, 처음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이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복학한 이후 바라본 학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이후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푹 빠진 김병훈 교수는 점차 물리학자라는 꿈을 향해 나아갔다고 한다. 자신의 꿈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던 교수님들에 대한 고마움은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자리해 있다고 김병훈 교수는 말한다. "졸업 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학교를 갑니다. 해가 다르게 변화·발전해가는 모교를 볼 때마다 제 일처럼 기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발전은 모두 여러 연구결과들이 하나씩 쌓여갔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김병훈 교수는 후배들에게 꿈과 목표를 향해 조금씩 성장해 가길, 대신 포기하지 않길 당부했다. 김병훈 교수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멈추지 않고 질주하길 응원한다.



왼쪽 맨 앞이 김병훈 교수



이슬기 학생 (이하 슬기) 송성일 학생 (이하 성일) 이연호 학생 (이하 연호) 박종태 교수 (이하 교수님)

반도체연구를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 전자공학과 박종태 교수와의 1일 데이트

지난 9월 SCI 논문지의 Microelectronics Reliability 9월호 온라인판에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제출한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화소식이 전해졌다. SCI는 전자공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논문이 이곳에 게재되는 이번이 세 번째. 한편 2000년도부터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해 40여 편의 논문을 작성한 전자공학과 4학년 이슬기, 송성일, 이연호 학생이 지도교수인 박종태 교수를 만나 논문작업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논문연구의 시작부터 SCI 논문지 게재까지

슬기, 성일, 연호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쁘신데 따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논문이 SCI 논문지에 게재될 거라고는 기대 못했는데, 이런 영광을 얻게 돼서 너무 기뻐요. 다 교수님이 잘 지도해주신 덕분입니다.

교수님 다 여러분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요. 행동도 어느 정도 따라준 것 같고 (웃음) 난 학생들이 연구하다 막혀서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올 때,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쪽이라 학생들이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연호 솔직히 처음에는 영어로 논문을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막막했어요. 게다가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하시는 논문들도 다 영문판이라, 연구보다 영어공부를 더 많이 해야 했지요. (웃음) 고생스럽긴 했지만 덕분에 영어실력도 많이 늘었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도 컸어요.

슬기 전 군대 제대를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복학을 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학과공부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반도체 수업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었어요. 저에겐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소재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고요.

성일 원래는 따로따로 교수님을 찾아가 논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저희 셋을 한 팀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서먹하기도 하고 어떻게 팀워크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는데, 밤늦게까지 함께 실험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친해졌어요. 논문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뿐 아니라, 덕분에 좋은 친구들까지 얻게 돼서 두 배로 기뻐요.

지도교수를 통해 연구에 대한 열정을 배우다

슬기 그런데 교수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가 되기 전에는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반도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교편을 잡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아,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기업이었던 금성반도체에서 일했지요. 83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의 일이에요. 내가 학교로 온 건 내 성향이 '연구원보다 학자' 쪽이란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며 사는 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성일 하지만 어떤 길이 자신에게 맞는 길인지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4학년이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교수님 그렇겠죠. 사실 우리 세대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학부 때 다방면으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또 어느 회사에서 가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과 끈기로 끝까지 도전하라

연호 교수님, 2000년도부터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신 논문이 40여 편이나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1년에 한두 편씩 꾸준히 발표하셨다는 얘긴데, 어떻게 그렇게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요?

교수님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성실'과 '끈기'지요. 난 영어실력을 쌓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타임지를 읽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단어 천지였는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읽었더니 나중엔 모르는 단어가 전체에 한두 개 정도 되더군요. 교수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분야랑 다른 논문을 읽으려 하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지.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끊임없는 자기훈련을 통해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슬기 전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지식기부'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교수님은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무시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유도해주시죠.

성일 맞아요. 교수님, 기억나세요? 교수님이 저희한테 신뢰도 측정에 관한 과제를 주시고 미국에 가셨을 때, 저희가 방법을 착각해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실험을 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린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당황해하시던지. (웃음) 그런데도 야단치거나 화내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결국 실험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지요.

교수님 물론 기억나죠. 하지만 누구나 그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학생 모두,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후속으로 연구하고 있는 논문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어요.

취업 우리는 UI Elite Program으로 통(通)한다

최근 20~30대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을 일컬어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취업, 결혼, 출산 등 세가지를 포기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에 처한 세대라는 뜻이다. 취업이 안되니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수 없고, 겨우 취업이 되더라도 결혼 비용 문제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 시기를 미루게 되고 출산에 대한 고민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20대의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면 그 걱정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인천대학교에는 이런 대학생들의 취업 걱정을 해소하고 취업 성공으로 인도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UI Elite Program'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천대학교의 자랑, 취업으로 통(通)하는 길을 알려주는 UI Elite Program에 대해 알아보자.

2011년, 취업률 80% 달성

UI Elite Program은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목표기업별 맞춤형 취업준비 프로그램으로, 산업별·직무별 6개 그룹을 선정해 전담 취업전문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책임 지도형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실시되었던 UI Elite Program의 성공 요인과 문제점을 분석 및 반영해 올해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총 116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목표인원으로 삼았던 80명 전원이 모두 수료해 100%의 교육달성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또 80명의 수료자 중 64명이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교육 목표인원 대비 취업률이 80%에 달하는 등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 기업에 취업 지원을 해서 합격했지만 더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취업에 재도전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프로그램만 수강한다고 모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012년, 더욱 탄탄해진 프로그램

UI Elite Program은 대기업 준비반인 1기와 중견기업외반인 2기로 나누어 이뤄지는데,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1기는 6월부터 9월, 2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려고 했으나, 1, 2기 모두 6월 말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전기전자 ▲금융 ▲해외영업 ▲건설플랜트 ▲유통/물류 ▲국내영업/마케팅 등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당 15명 이내의 인원으로서 총 180여 명(1, 2기 각각 9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각 그룹별로 외부컨설팅 전문회사의 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해 담당 그룹 학생들의 취업까지 책임지는 담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타 취업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직무 및 자기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해준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3단계로 운영, 사후관리도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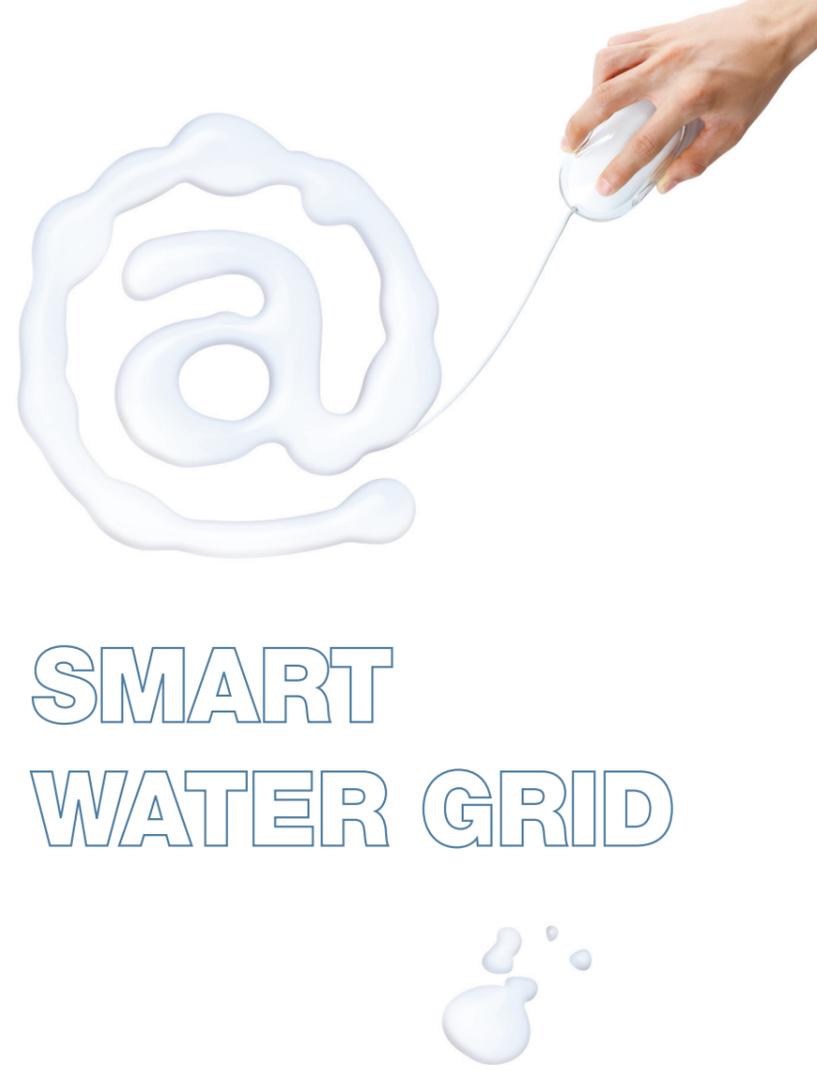
UI Elite Program은 크게 직무분석, 취업스킬, 구직활동의 단계로 운영된다. 직무를 분석해 그룹을 정하고, 담당 컨설턴트를 배정 받은 후, 그룹별로 면접 및 입사지원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교육받고, 스터디를 통해 여러 과제 수행 및 실습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담당 컨설턴트와 온라인을 통해 1:1 맞춤형 취업전략을 세우는 사후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UI Elite Program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개발원의 최재혁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점이 UI Elite Program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전공, 학점, 학교 등의 문제로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취업 준비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게 해줌으로써 하고 싶은 일, 일하고 싶은 기업을 목표로 삼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직무그룹별 운영으로 직무에 적합한 취업 지원의 극대화 및 취업률 제고, 하반기 공채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조기 취업 효과 등도 UI Elite Program의 실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처럼 UI Elite Program은 취업을 걱정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다. 혼자 취업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취업으로 통(通)하는 지름길, 인재개발원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Smart Water Grid 연구단 출범 기념 심포지움 개최 현장

인천대학교, 물 분야 산업 선두에 서다

9월 14일, 우리 학교 E-Biz 센터에서 'Smart Water Grid 연구단' 출범기념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물과 IT의 만남, 그리고 미래 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인천대학교 최성을 총장을 비롯해 인천시 김진영 정무부시장, 문병호 국회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최성을 총장 출범 이후 첫 사업 프로젝트인 'Smart Water Grid 연구단' 출범식, 그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세계 물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약속하다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하나로 'Smart Water Grid 연구단(이하 SWG 연구단)'이 지난 7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9월 1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E-Biz 센터에서 '물과 IT의 만남, 그리고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로 출범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특히 SWG 연구단 출범은 '최성을 총장 호'가 출범 후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향후 나아갈 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심포지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심포지움이 열리는 E-Biz 센터 3층 로비는 많은 이들이 웅기중기 모여 준비된 다과를 나누며 인사

를 하고 미소를 건넸다. 이는 SWG 연구단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 김진영 정무부시장과 문병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35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후 2시 30분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포지움이 시작됐다. 최성을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물 공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물 자원 부족이 우려되어 국가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 복지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한 SWG 연구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SWG 연구단 출범 기념 심

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본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지원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문병호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축하와 함께 "이번 심포지움 행사와 SWG 연구단의 출범을 통해 수자원 확보와 수자원 격차 해소, 수질과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저에너지 고효율의 지능형 유지관리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에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김형렬 수자원정책관은 "오늘 이 행사가 미래 물 강국으로 나아가는 큰 한걸음이 라고 생각한다"며 "국토해양부도 본 연구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환영사를 건넸다.

이후 SWG 연구단장 최계은 교수의 'SWG 연구단의 출범과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뒤이어 도화엔지니어링 김성현 이사의 '인천광역시 수도정비 기본방향과 SWG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고광동 차장의 '농촌용수 관리시스템의 SWG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이렇게 1부 행사를 마친 뒤, 15분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때는 참여 인사들과 발표자 등 모든 참석자들이 로비로 나와 SWG 연구단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서로 나누기도 했다.

2부 순서는 'SWG 연구단의 비전'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융복합지식학회 회장 최진탁 교수를 좌장으로, 삼성물산 물환경팀 구분진 상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근동 전무,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안태진 교수, K-Water 상하수도연구소 김충환 소장 등 7명의 토론자가 관객을 바라보고 앉아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SWG 연구단은 4년 동안 총 320억 원(정부출연금 228억 원)을 활용해 인천을 비롯해 국내 물 문제 해결과 물 관련 분야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SWG 연구단이 4년간 연구진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급자 위주의 물 관리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가 직접 눈으로 수질과 수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 관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WG 연구단 출범기념 심포지움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연구단의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다. 국가 차원의 지원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뭉친 SWG 연구단, 이제 그 희망찬 발걸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 힘찬 응원과 더불어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똑똑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Smart Water Grid!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서울 강남역 일대는 여름이면 어김없이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 지역이다. 이 일대는 2010년 여름부터 3년 연속 침수된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여름이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지하철이 중단되는 등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물 문제의 해결과 물 관련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차세대 물 관리 개념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이하 SWG)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SWG란 무엇이고, 과연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길래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총 4년 동안 320억 원 투자

지난 8월 인천대학교 Water Grid 지능화 연구단 컨소시엄(이하 SWG 연구단)이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과제 공모에 선정되었다. 20개가 넘는 기관과 80명이 참여하는 SWG 연구단은 인천시와 전라북도(새만금) 등의 지자체를 비롯해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등의 대기업, 여러 대학교와 연구소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총 4년으로, 320억 원(정부 출연금 228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고효율의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자원 자립율 30% 향상 ▲0.5kg CO₂/m³의 능동 수자원 확보 ▲도시 용수 공급 시스템의 문제 발생 빈도 50% 감소 ▲비상 물 공급 체계 구축 ▲도시 내 물 관련 운영에너지 10% 감소 및 유지관리 비용 20% 감소 달성이 세부 목표이다.

수자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시스템화

그렇다면 SWG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과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것일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SWG는 기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CT를 활용해 다양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 수송하는 지능형 물 관리 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물이 넘친다, 어느 지역의 수질은 뛰어나다 등의 정보를 시스템화시켜서 용수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 SWG가 정착될 경우 수자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물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질, 물의 양과 흐름 등 수자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물 관리 관련 대규모 연구는 세계 최초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물 순환,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등은 인천대학교 최계운 교수를 단장으로 한 SWG 연구단이 맡게 된다. SWG 연구단은 올해 안으로 총괄계획을 마무리하고 세부기술 구축,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한 수정 보완을 거쳐 2015년 시범도시에 적용해 본 후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계운 SWG 연구단장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실시간 데이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해와 재해를

알리는 예보 시스템도 없어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고 SWG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호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지능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의 대규모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대학교 미래관에 등지를 틀고 연구에 착수한 SWG 연구단은 물, 컴퓨터, IT기술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게 된다. IT와 물 관리 기술과 시스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그야말로 스마트한 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향후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기술과 표준화 기술 선점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물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Mini Interview



SWG 연구단 최계운 단장

국책 사업에 선정된 소감은?

보통 국책 사업은 차세대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SW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SWG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장점은?

우선 안전하게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시설이나 비용 등을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10% 가량

절약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SWG 연구단장으로서의 계획은?

SWG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인천과 새만금 등의 시범 도시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물 관련 사업의 수출 주종상품으로 만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SWG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글로벌 물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열정
뜨거운
으로
도전하는
점음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20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에 도전해 때로는 성공을, 그리고 때로는 실패를 맛보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인천대학교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곳곳에서 자신의 끼를 발휘하며 역량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보자.

TOPCIT 경진대회 대상 - 구건모



“버릇처럼 참가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어 기쁘다”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구건모 군이 제1회 TOPCIT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가 개최한 이 대회는 IT 역량지수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IT 산업 분야의 종사자가 비즈니스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종합적인 평가 제도이다. 쉽게 말해 토익의 IT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구건모 군은 “평소에 공모전이나 대회 포스터 등을 보면 버릇처럼 참가신청을 했었다. UCC공모전에도 나가고, 글쓰기 공모전에도 나가봤다. 상을 탄 적은 없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버릇처럼 참가신청을 하고 수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구 군이 이 경진대회를 알게 된 것은 8월 말. 시험이 9월 23일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제를 한 번 풀어본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상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다고.

마지막으로 구건모 군은 “평소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공부 방향을 제시해 준 학부 교수님들의 도움이 컸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학벤처경진대회 대상 - 오중석

“종합적인 반려동물 관련 회사를 만드는 것이 꿈”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오중석 군은 학생보다는 사장, 대표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린다. 졸업도 하기 전, 창업에 성공해 현재 애견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군이 매경 대학벤처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지원과 본인의 사업 성공성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대학교 1학년 때 선진국의 애견문화를 접하고 창업을 천천히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다. 바쁜 스케줄을 쪼개어 가며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부분은 기존의 사업을 콤팩트하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

하는 거였다. 이런 오 군의 노력이 통했는지 결과는 대상으로 돌아왔다.

2012년 4월 애견 카페를 연 오 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프리미엄 애완동물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대학교의 예비창업지원프로그램 덕분에 화성시에 반건조 사료 공장을 짓고 10월 중순부터 사료를 출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적인 반려동물 토탈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오 군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새롭고 참신한 서비스 준비에 여념이 없다.

희망이음프로젝트 금상 - 생각나래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2012 지역대학생-지역우수기업 희망이음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천대학교 생각나래팀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팀을 이뤄 지역의 기업을 방문해 살아있는 기업 정보를 담은 탐방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 5천여 명이 참여해 325개 기업을 탐방하며 열띤 경합을 벌였다. 생각나래팀은 프레스 제조 메이커인 (주) SIMPAC을 방문, 무한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

신나라 양은 “학교에서 현수막을 보고 대회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 학부 수업 중에 비슷한 과제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6월 말 경 인천의 중소기업 3군데를 돌아다니며 기업 탐방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 헤매기도 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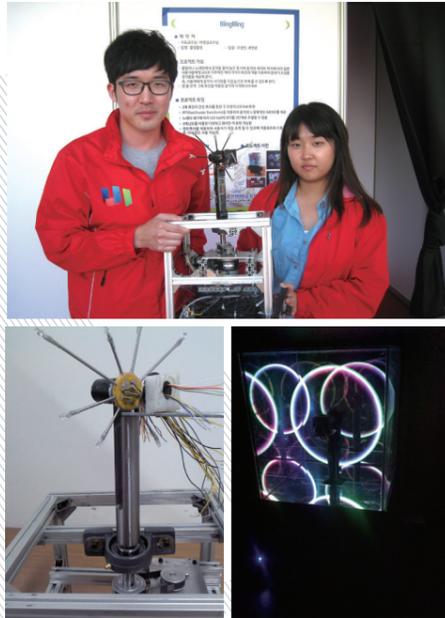
금상이라는 영예를 누린 생각나래팀 팀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마친 후 느낀 점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방문해보고 느낀 점은 정말 회사도 크고, 복지시설도 좋다는 점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제조기업들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인지도는 낮을 수 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에도 눈을 돌린다면 정말 취업의 길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종합설계 거점경진대회 금상-블링블링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에서 주관한 2012 창의적종합설계 거점경진대회에서 인천대학교 블링블링팀이 'Bling Bling'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창의적종합설계 거점경진대회는 공학계열 학생들의 종합적인 설계 능력을 겨루는 경진대회로, 팀원인 박연준 군은 2학년 때부터 기계과 소모임인 I-Meca 활동을 하며 대회를 참여하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이런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는 박 군. 그는 팀을 이룬 오정민 양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창의성과 완성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 “2학년 때부터 대회를 참여해보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했다.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박 군의 생각이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팀원들끼리 찾아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뿌듯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블링블링팀. 앞으로도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며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국체전 탁구(여대) 은메달 - 이예인

“내년에는 단체전에서 좋은 결과 내고 싶다”



제93회 전국체전 탁구 여대 개인전에서 탁구부 창단 2년 만에 소중한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희소식이 들렸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예인 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한 이 양은 “출전 당시에는 입상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는데 결승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어서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았다”고 전했다. 학교 안에 탁구연습장이 없어서 수업을 마친 후 근처의 초·중·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연습을 해야만 하는 것이 체력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이예인 양. 하지만 이번 수상을 통해 힘든 것보다는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다.

“현재 우리 학교 탁구 선수는 2명이라 단체전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에도 일반 선수 2명과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명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4단 1복식 경기를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성적도 중요한데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보고 싶거든요.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 전국체전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한국대학생토론대회 준우승 - 세 치 허팀

“인천대학교 학생들의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지난 11월 3~4일 개최된 제5회 한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인천대학교의 김영신, 김한솔 군이 팀을 이룬 세 치 허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와 한국의 컨설팅사인 'The Global Leader'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22개 대학교에서 42개 팀이 신청해 워크숍과 예선, 준결선을 거쳐 상위 4개 팀이 결선토론을 가지는 순으로 이루어졌다.

평소 말하는 것을 좋아했던 김한솔 군은 “김영신 선배와는 대학토론 배틀 예선 때 처음 만났고, 그 후 아이언유 팀원을 모집할 때 지원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이번에 팀

까지 이루어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매주 각종 정치, 경제, 사회 이슈에 관한 토론과 논리학 공부, 신문사설비판 등을 병행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다’라는 논제로 진행된 결선토론은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에서 의견을 펼쳐야 한다. 세 치 허팀은 찬성 측에서 토론할 때는 기술 발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 충실해서, 반대 측에서 토론할 때는 기술의 발전이 과연 어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했는가에 중점을 맞춰 준비했다.

이번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김한솔 군. 마지막으로 김 군은 “타 학교에는 토론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 학교는 토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천대학교 학생들도 토론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진대회 연비상 - Freeze팀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2012년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에서 인천대학교 Freeze팀이 특별상(연비상)을 수상했다. 김경배 교수의 추천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된 Freeze팀은 팀장인 임태준 군을 비롯해 총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작년에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명. 막내로 팀장을 맡은 임 군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팀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 28개 팀 중 4위로 완주할 수 있었다.

이 대회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 경쟁하는 대회이지만, 속도로 승부하는 레이스 방식이 아니라 속도도 빠르면서 연비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 차체도 가벼워야 하고, 자동차와 모터의 성능비가 맞아야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군은 “쉬운 일은 없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전지장치였다. 복잡한 회로도도 보며 풀어나가야 하는데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모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힘부러 도전할 수도 없고,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군은 “Freeze팀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앞으로 더욱 뻗어나가고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인천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하고 신뢰받는 동호회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송도의 디자인시대를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다

2010년 미술학부의 세 가지 전공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는 통합적 디자인교육을 지향하는 동북아 중심의 디자인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산업과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디자인학부가 일어나갈 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디자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는 인천대학이 공과대학에서 단과대학으로 전환한 1980년 10월, 미술학과로 첫발을 내딛었다. 81년 첫 입학생을 받은 이후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등 세 전공으로 나누어 운영해오다가 2010년 3월 디자인학부로 통합, 개편하였다. 디자인학부는 통합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손색 없는 규모와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학생 수는 4배로 늘어나고 전문분야의 내용도 더욱 다양해졌다. 또 국제적 디자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생들이 국내외 디자인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영희 교수(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는 “학부의 규모가 커지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능성 있는 인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다 큰물에서 서로 다른 개성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창조적 자극을 주고받으며 함께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통합된 학부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처럼, 디자인학부는 다양한 학제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디자인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디자인학부에는 경험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시각디자인, 영상디자인, 포장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 3D입체영상,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을 주요자원으로 하는 산업, 생활,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

공모전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열정을 키우다

디자인학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디자인 문화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김영희 교수는 ‘인재는 고여 있는 물에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시야를 넓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발굴하고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강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공모전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공모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느슨해졌던 마음을 곧추세우게 되죠.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고, 또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들고요. 실제로 공모전 수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후 더욱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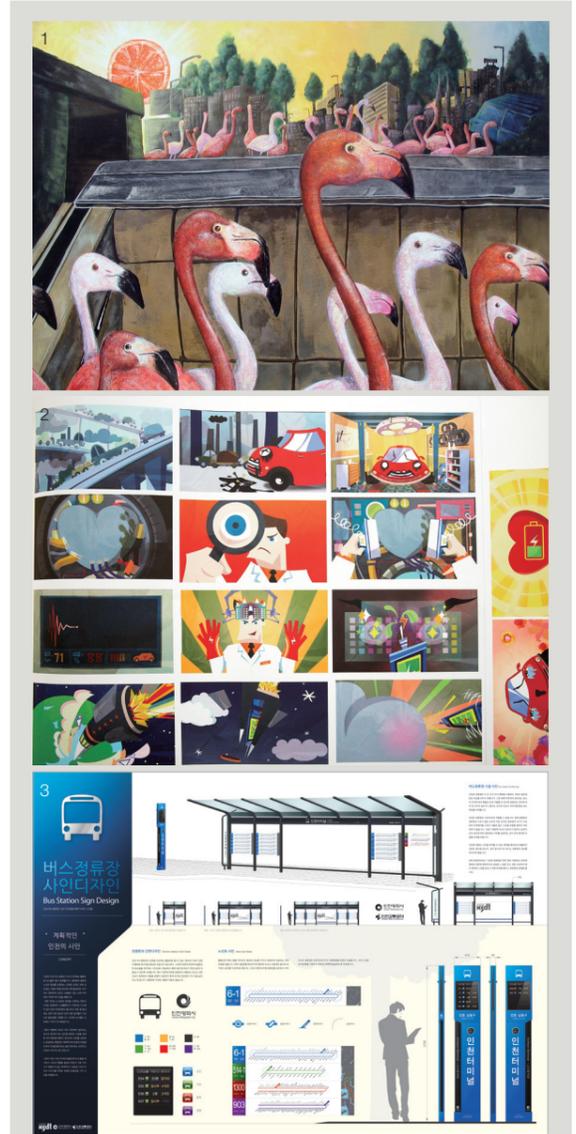
김영희 교수는 공모전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작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칫 공모전에 치중해 학과수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수업의 일부로, 혹은 과제로 틈틈이 작업하여 완성한 작품을 출품하게 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다. 공모전에만 집중해서 완성한 작품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수업 하나하나가 공모전 준비의 일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교육의 모든 과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 공모전 준비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최근 디자인학부는 ‘제17회 한국디자인트렌드 대전’에서 88작품을 출품하여 동상 3점, 특별상 2점, 장려상 3점, 특선 21점, 입선 30점 등 총 59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디자인시대, 새로운 가능성의 중심에 서다

또 지난 9월에는 디자인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윤효연, 김진주, 추연용 학생이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한 ‘제1회 SK 이노베이션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일러스트와 3D영상을 결합한 홍보영상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1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얻은 소중한 상이다. “전에도 몇 번 공모에 도전했었지만 수상은 처음”이라며 수줍게 웃는 윤효연 학생의 얼굴에는 아직도 설렘이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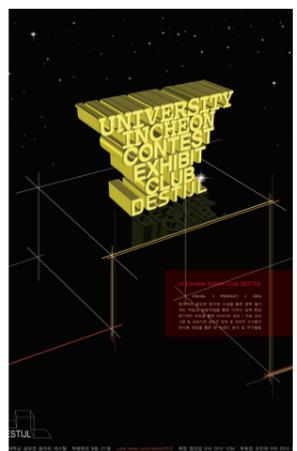
“디자인학부는 멘토-멘티 제도나 도란도란세미나 등 선·후배 교류가 아주 활발해요. 저희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4년 동안 다양한 전문분야를 폭넓게 배우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앞으로 디자인학부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형태, 조명, 색채는 물론 간판 하나까지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



1 썬텐중(이지운)
2 SK이노베이션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동작업(김진주, 추연용, 윤효연)
3 버스정류장 사인디자인(우준영)

울 정도로 디자인분야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최근 GCF 유치에 성공한 것을 비롯해, 2013년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인천에서 열릴 중요한 국제대회들이 수많은 디자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과 맞물려 디자인학부의 해외 인지도도 더욱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동아리 DESTJUL 홍보포스터(정재연)





UI금융연구회

꿈 많은 예비 금융인들 인큐베이팅 하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내 소모임인 'UI금융연구회'는 지난 8월 열린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동상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었다. 작은 소모임에서 이뤄낸 쾌거지만 올해로 벌써 3년째 연속 수상이란다. 인천대학교의 이름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널리 알린, 작지만 단단한 이들을 소개한다.

준비된 경제학도들의 준비된 연구

이름 그대로 '금융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인천대학교 UI금융연구회다. 2008년 한국은행 출신의 금융 전문가인 함정호 교수가 경제학과에 부임한 후 삼삼오오 모여 실물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작은 모임의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다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하는 교수님의 요청이 있었어요. 함께 생각하고 토론

할 때 생기는 시너지가 크기 때문이기도 했고, 공부 또는 취업과 관련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모인 3-4학년 10여 명이 UI금융연구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40여 명으로 늘어난 UI금융연구회의 시작을 회상하는 오영환 학생(경제학과 4학년, 초창기 회장)은 지금도 변치 않는 UI금융연구회의 높은 입회요건 때문에 처음엔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꼭 지켜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문구가 작게나마 붙어있긴 하지만,

‘졸업 시 학점 3.5 이상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거나 ‘4학년 1학기 말까지 토의 900점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금융관련 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높은 벽과 같았다고 전택 회장(경제학과 3학년)은 말한다.

“그만큼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와 끈기, 기개를 품어야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 있는 소모임은 아니었지만, 학업이나 경제공부에 절실한 사람들이 찾았고 그만큼 한 번 꾸려진 모임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UI금융연구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정기 발표회’를 이어오고 있다. 4-5명을 한 조로 구성해 한 달에 한 번 가량 정기 발표회를 개최하는데, 매주 모여 최근 경제이슈에 대해 각자 조사 후 조별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이때는 발표회에 참석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더욱 다져나간다고.

“학업 중에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들에 치중하는데, UI금융연구회에서는 현실경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니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오연수 학생(경제학과 3학년)의 경우 UI금융연구회에서 진행한 한국은행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연스럽게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정기 발표회와 더불어 각종 세미나와 견학, 외부 초청 강연 등 UI금융연구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기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토론과 강의, 견학 등이 어우러져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져가기에 UI금융연구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학업점수 또한 우수한 편이라고.

사제와 선·후배의 힘으로 이뤄낸 수상의 기쁨

UI금융연구회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다. 각종 공모전과 자격증을 준비하는 일 또한 조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한국은행이 제공한 국내·외 경제정보를 탐독 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대회로,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금융권 대회 중 공신력 있는 대회이기도 하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매년 국내 내로라하는 60개 대학에서 참가하



‘2012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UI금융연구회 ‘금융안정’팀

는 이 대회에서 UI금융연구회는 2009년 지역예선 최우수상과 전국본선 은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은행에 계셨던 함정호 지도교수님께서 처음 대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인천대학교의 위상을 보여주자는 생각에 교수님께서 직접 대회의 전략에 대해 고민하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셨어요. 학생들의 일을 내 몸처럼 생각하신 교수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UI금융연구회 선배님들의 경우 대회준비기간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학교에 자주 오셔서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교류를 많이 갖는 편입니다. 경시대회의 경우 다른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인천대학교가 수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교수님과 선배, 그리고 후배들이 한데 뭉쳐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향한 전택 회장의 무한한 감사에 한규용 학생(경제학과 3학년)역시 말을 덧붙인다.

취업과 학업성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슬픈 대학생들의 현실 앞에 UI금융연구회는 학업에 대한 목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진정한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제, 선·후배가 함께 하는 모습이 아말로 대학에서 부활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경제학이란 학문과 더불어 함께 탐구하는 짜릿함을 경험하고픈 사람이라면 지금 UI금융연구회의 문을 두드려도 좋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으니 말이다.



2012 인천대학교 축제 현장 속으로

즐길 준비 됐나요?
열광의

Friday Night!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제물포캠퍼스에서 '2012 인천대학교 축제'가 열렸다. 국립대 법인화를 앞둔 시점에 서 열리는 뜻깊은 시간. 학생과 주민이 한데 모여 제대로 즐긴 축제 마지막 날에는 가수 싸이가 등장해 1만여 명이 넘는 관객과 말춤을 추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그야말로 모두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던 금요일의 인천대축. 온 몸의 에너지를 발산했던 가슴 후끈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개성만점 학생들이 준비한 축제 한마당

땅거미가 깔릴 무렵, 소극장 중앙무대 주변에 들어선 40동의 천막에서는 손님 유치 작전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다. 하긴 축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먹거리가 아니겠는가.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천막 풍경을 구경하다 보니 입에서 군침이 절로 돌고, 메뉴도 포장마차를 능가할 정도로 아주 다양하다. 음식 솜씨를 제대로 발휘하는 학생들은 몸이 열두 개라도 모자를 정도로 분주해 보인다.

“고기는 자주 뒤집으면 안 돼요. 타이밍이 생명이죠. 한 눈 팔다 보면 금세 탄다니까요. (웃음) 저기 손님! 갈매기살 드시고 가세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상의 맛. 그냥 가시면 후회하십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덕분에 갈매기살을 공수해 온 자동 차공학과 이보람 학생은 고기 굽기 신공을 선보이며 손님들을 끌어 모은다. 남자 손님들이 특히 많았던 학과는 단연 유아교육



과. 험광 머리띠를 하고 양증맞은 단체복을 맞춰 입은 여학생들은 정성 들여 준비한 재료로 부추전, 소시지 볶음 등 안주를 똑딱 만들어낸다.

학과를 알리려는 학생들의 홍보 전략은 기발했다. 드라마 <신사의 품격> 주인공들보다 잘 생긴 건축학과 학생들은 유일하게 카테일을 만들었으니 예쁜 빛깔만큼이나 맛도 근사했다. 공연예술헌학과 정해나 학생이 말하는 '우리 과 축제 콘셉트'는 카페와 의상의 만남이란단. 드레스와 턱시도 등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차를 마시며 즉석 사진은 공짜라고 하니 귀가 솔깃해진다.

이틀 동안 진행된 축제 첫날에는 개막밴드 공연, 풍물놀이 한마당, 학생 가요제 등 다양한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했다. 마지막 날 저녁 7시,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소극장 중앙무대에 진행자인 개그맨 박미루 씨가 등장하자 수많은 관객이 무대 앞으로 모였다. 공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합합 댄스동

아리인 JP크루 멤버들이 등장하자 관객의 어깨는 저절로 들썩 들썩.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받은 학생들의 현란한 몸놀림과 재치 있는 무대 매너에 여기저기서 "잘생겼다", "오빠! 짱"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진 '가슴을 열어라' 시간에는 체육학부 최민솔 학생이 나와 곧 있으면 만났지 1년째 되는 여자 친구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깜짝 이벤트를 열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라드를 열창하는 최민솔 학생. 무대에서 비눗방울이 쏟아지자 먼발치서 구경하던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노는 싸이가 왔다! 진짜 왔다!

푸짐한 경품을 걸고 열린 관객들의 가위바위보 대결, 매드맥스의 가요댄스 등 공연은 지루할 새 없이 이어지고 관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

"축제는 모든 대학교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축제

는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열린 터라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곧 있으면 시험인데 학생들이 축제를 맘껏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행사 진행에 여념 없는 윤민 총학생회장은 그동안 제물포캠퍼스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학교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인천대인들의 패기와 열정을 알리는 것이 취지라고 덧붙여 말했다. 학생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자 모두 한바탕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이제는 국민 애창곡으로 등극한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반열에 오른 가수 싸이의 공연이었다. 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공연에 앞서 가수 에일리의 무대가 꾸며졌는데, 대표곡인 'Heaven'을 부르는 가수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드디어 시작된 싸이 공연. 운동장도 모자라 무대가 보이는 자투리 공간을 찾아 즐길 준비를 한 1만 3천여 명의 관객은 'Right now'로 포문을 연 싸이의 히트곡을 따라 부르며 무아지경에 빠

졌다. 싸이는 쉴없는 스케줄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으나 대학 축제의 마지막 일정을 신명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사실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 하나가 안전이다. 이에 총학생회와 학생 지원과는 교내 경호 봉사 팀을 꾸려 무대 주변에 배치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협조를 구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열창하자 험광막대를 손에 쥔 관객들이 제자리 뛰기를 준비했다. 마치 연습이라고 하고 온 것처럼 울동이 딱딱 맞아떨어지니 신기할 따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말춤 삼매경에 빠져 곡이 끝난 것도 모를 정도였다. 이번 축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싸이 공연 보려고 하루 미웠어요. 집 근처에서 이런 대형공연을 언제 또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것 좀 보세요. 하하! 저와 아내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신납니다. 밤새워서 놀고 싶어요."

싸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박형식 씨는 인천대학교가 가족에게 좋은 추석 선물을 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행사장 밖을 나서는 관객들은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였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으로 가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듯 내년에 열릴 축제가 벌써 기다려지는 하루였다.



GCF 사무국 연계해 6대 사업 추진



우리 대학은 GCF 사무국 유치와 연계해 6대 핵심전략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각 사업별 TF팀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6대 전략은 ▲동북아 기후·에너지 포럼 개최 ▲학교 내 기후테마파크 조성 ▲외국인 정주 서비스 센터 설치 ▲GCF 연계 전공학과 개설 ▲국제기구 출신 외국인 전임 교수 영입 ▲녹색기후환경연구센터 등이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발전기금 기탁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2기 수료생들이 지난 10월 12일 2,000만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김만호 12기 원회장은 "2013년 1월 국립대학 출범을 앞둔 인천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원우들의 바람을 모아 발전기금을 마련해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랑나눔 교직원회, 자선음악회 개최

우리 대학 사랑나눔 교직원회는 10월 23일 인천지역의 소년소녀가장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는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교직원들은 물론 학생들까지 참여했으며, 색소폰 및 기타 연주, 난타 공



연, 실내악 6중주와 4중창 등 다양한 연주가 펼쳐졌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우리 대학의 역사가 시작된 남구에 전달했다.

연구수와 남구에 사랑의 쌀 전달



최성을 총장이 지난 9월 19일 연구수와 남구를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최성을 총장은 송도캠퍼스가 소재한 연구수, 제물포캠퍼스가 위치한 남구에 각각 10kg짜리 강화쌀 100포씩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관계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의 연탄나눔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11월 24일 연탄 2,000장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연탄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에 의해 연구수 지역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배대됐다.

세계중국어어수사학대회 개최

우리 대학이 북경대학교와 공동주최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12 세계중국어어수사학대회를 개최했다. 수사학이란 독자들에게 감

동을 주기 위해 문장이나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수단을 선택해 이용 수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16개국에서 100여 명의 학자가 참가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중국학 연구소와 공자학원을 개설해 중국학 연구와 중국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MOU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15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인천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예비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원, 교원 연수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게 된다.

사범대, 인천시의회와 미래포럼 개최



사범대는 11월 2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미래포럼은 사범대학이 경인지역 소재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인천의 중등교육 발전을 이끌고, 이에 상응하는 위상정립과 역할 수행을 위한 미래비전과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김영태 위원장은 학교현장과 사범대의 연계성 강화를 강조했다. 허희숙 의원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서 높아지는 위상 속에 인천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학교 사범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을 제시했다.

일본문화연구소, 인문학 연속강좌 개최

우리 대학 일본문화연구소는 시민인문강좌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5일부터 2013년 4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도시인문학 연속강좌 '근대도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묻다'를 개최한다.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6시(1~10회)와 스페이스빔(11~12회)에서 진행된다.

태국 명문 타마삿대 언론대학 초청 교류



신문방송학과는 11월 8일 태국 타마삿대 언론대학과 '한국과 태국 미디어 발전을 위한 인천대-타마삿대 국제교류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대학은 ▲한국과 태국 언론계의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 논의 ▲언론인들 간의 정기적 교류 프로그램 주관 ▲실질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을 협의했다. 타마삿대는 태국의 대표적인 국립대로 역대 태국총리 5명과 최고 지도층 등을 배출했다.

교토대 학술교류 국제심포지엄



우리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과 교토대 경제학과 대학원의 학술교류 국제심포지엄이 11월 23일, 24일 양일간 경제학과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과 '노벨상의 메카'로 알려진 일본 교토대 경제학과 대학원 간의 학술 교류가 주목적이다. 또 한·중·일 3국 대학 간 교육 및 연

구의 공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관한 본격적인 실무적 토론회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신은철 교수, 카자흐스탄 대통령 공로메달 수상



도시환경공학부 신은철 교수가 11월 22일 카자흐스탄 술탄나자르바예브 대통령으로부터 공로메달을 받았다.

신 교수는 2010년 한국지반공학회와 카자흐스탄 지반학회 간 상호교류협정 체결을 주도하는 등 카자흐스탄의 토목환경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카자흐스탄 국립연구소 인주택 및 설비과학기술 환경연구소에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물 재활용,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박준기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운동건강학부 박준기 교수가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교수는 그동안 청소년과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고 생활 속에 규칙적인 운동이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 운동을 보급·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용식 교수,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도시건축학부 김용식 교수가 10월 8일 제8회 건축의 날을 맞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토해양부는 김용식 교수가 1994년부터



18년 넘는 기간 동안 건축환경 및 설비와 관련된 기술 개발, 학생교육, 학회활동 등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 건축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이번 표창을 수여했다.

박영돈 교수, 신진학술상 수상



에너지화학공학과 박영돈 교수가 지난 11월 22일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주제로 제24차 방사광이용자 연구발표회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화학공학부문의 우수한 연구결과 발표가 열린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시민대학, 제2회 기획작품전 개최



2012 인천시민대학 기획작품전이 지난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2012년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에 수강중인 학생 및 지도교수들이 그동안 교육을 통해 익힌 솜씨를 한자리에서 보고 나누는 체험의 자리로, 이날은 미술, 화예, 공예, 창업 등 4개 분야 8개 과정(한국화, 서양화, 서예, 서각, 성전 및 전례꽃꽂이, 사진창작, 자연염색, 우드버닝)의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인천대학교
University of Incheon

국립대학의 날개를 달고,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서른세살의 젊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는 큰 뜻을 펼쳤습니다.

송도 신 캠퍼스 이전과 국립대학 법인으로의 전환을 발판으로,
인천대학교가 동북아 중심의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합니다.
세계 100대 대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인천대학교가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펼칠 미래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2012년 국가브랜드대상 최우수 지역거점 대학부문 수상
2011년 대학 기관평가 인증 · 2011년, 2012년 2년연속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 수상 · 2011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
2011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 수상 · 2011~2012년 한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주소

□□□-□□□



받는 사람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송도동 12-1)

406-772

펼쳐하는 곳



발전기금기부자 현황

2012년 8월 ~ 10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인천대학교를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무통장 후원하기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ARS 후원금 서비스 060-703-1212 한 통화당 3,000원

100만원 이상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성명	관계	기부액
(재)미래국제재단	법인	200,000,000	김영주	직원	421,000	김명현	동문	150,000	신영애	직원	33,000
신현규	학생	5,000,000	김홍대	직원	421,000	류화정	동문	150,000	이지형	직원	33,000
김교홍	동문	2,309,470	송태영	직원	421,000	문화중	동문	150,000	이진성	직원	33,000
잉글리쉬엔	기업	1,637,480	음창윤	직원	421,000	박종욱	교수	150,000	장서은	직원	33,000
변윤식	교수	1,500,000	이광준	직원	421,000	신원태	교수	150,000	정경란	직원	33,000
(주)원더보이	기업	1,500,000	이상동	직원	421,000	우인성	교수	150,000	정중환	직원	33,000
은용수	교수	1,000,000	임승빈	직원	421,000	유정흔	동문	150,000	지은미	직원	33,000
			최재웅	직원	421,000	윤용	동문	150,000	최인수	직원	33,000
			김기웅	교원	300,000	임주택	동문	150,000	추승호	직원	33,000
			김영관	교수	300,000	최호규	동문	150,000	한상화	직원	33,000
			김주영	동문	300,000	한상혁	직원	150,000	한상훈	직원	33,000
			박인호	교수	300,000	정홍열	동문	120,000	한용갑	직원	33,000
			박종현	동문	300,000	강경태	동문	90,000	홍경수	직원	33,000
			박창화	교수	300,000	김종섭	동문	90,000	홍광기	직원	33,000
			손천택	교수	300,000	김규만	동문	90,000	황선용	직원	33,000
			오철민	동문	300,000	김정곤	교원	90,000	황선조	직원	33,000
			윤찬원	교수	300,000	김찬주	교수	90,000	강병민	동문	30,000
			이갑영	교수	300,000	박은경	교수	90,000	강현자	동문	3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신동태	동문	90,000	김성은	동문	30,000
			이병수	교수	300,000	신호수	교수	90,000	김은희	동문	30,000
			이상락	교수	300,000	안춘순	교수	90,000	김재철	동문	3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우창기	교수	90,000	김종인	직원	30,000
			이은주	교수	300,000	윤덕영	동문	90,000	김지훈	동문	30,000
			이재석	교수	300,000	윤영돈	교수	90,000	김치용	동문	30,000
			이종열	교수	300,000	이진욱	동문	90,000	김현진	동문	30,000
			이찬식	교수	300,000	임찬욱	직원	90,000	문종욱	동문	30,000
			최근영	동문	300,000	장인우	교수	90,000	박도균	동문	30,000
			최두원	동문	300,000	조한장	동문	90,000	박일총	직원	30,000
			충남집	기업	300,000	한상철	교수	90,000	박정연	직원	30,000
			함정호	교수	300,000	유혜경	교수	75,000	박정희	동문	30,000
			강연제	직원	228,000	임순	교수	75,000	배기람	동문	30,000
			김중호	직원	228,000	고민정	교원	60,000	서상범	직원	30,000
			박노신	직원	228,000	곽용성	직원	60,000	성정욱	동문	30,000
			박청남	직원	228,000	김영구	교수	60,000	신천수	직원	30,000
			배순희	직원	228,000	김인영	동문	60,000	신현호	동문	30,000
			소용	직원	228,000	김태영	직원	60,000	유병순	동문	30,000
			손하연	직원	228,000	김현진	교수	6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선식	직원	228,000	김희강	동문	60,000	이두영	동문	30,000
			전병준	직원	228,000	손정숙	직원	60,000	이병기	동문	30,000
			정창기	직원	228,000	양해민	학생	60,000	이상봉	동문	30,000
			최형우	직원	228,000	유현국	동문	60,000	이성호	동문	30,000
			한신자	직원	228,000	이동엽	동문	60,000	이정희	직원	30,000
			한재역	직원	228,000	이효정	동문	60,000	이중훈	동문	30,000
			허창렬	직원	228,000	최명중	직원	60,000	임경남	개인	30,000
			황의석	직원	228,000	최인한	동문	60,000	조성현	학부모	30,000
			신동욱	동문	200,000	김소옥	직원	50,000	조윤구	동문	30,000
			권기체	직원	150,000	오복자	동문	40,000	조철영	동문	30,000
			김병훈	동문	150,000	김연자	직원	33,000	최현아	동문	3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주일	직원	33,000	한상길	동문	30,000
			김승환	직원	150,000	박상곤	직원	33,000	한현미	개인	30,000
			김진우	동문	150,000	박형의	직원	33,000	윤희량	동문	15,000
						서원형	직원	33,000	홍주학	동문	10,000

100만원 미만

김만호	동문	750,000	김영관	교수	300,000	최호규	동문	150,000	한상혁	직원	150,000
송용근	직원	656,000	김주영	동문	300,000	한상혁	직원	150,000	정홍열	동문	120,000
공준환	직원	641,000	박인호	교수	300,000	정홍열	동문	120,000	강경태	동문	90,000
배양섭	교수	600,000	박종현	동문	300,000	강경태	동문	90,000	김종섭	동문	90,000
강선구	동문	550,000	박창화	교수	300,000	김종섭	동문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권오석	동문	550,000	손천택	교수	300,000	김규만	동문	90,000	김정곤	교원	90,000
김광희	동문	550,000	오철민	동문	300,000	김정곤	교원	90,000	김찬주	교수	90,000
김동윤	동문	550,000	윤찬원	교수	300,000	김찬주	교수	90,000	박은경	교수	90,000
김성균	동문	550,000	이갑영	교수	300,000	박은경	교수	90,000	신동태	동문	90,000
김성환	동문	55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신동태	동문	90,000	신호수	교수	90,000
김영희	동문	550,000	이병수	교수	300,000	신호수	교수	90,000	안춘순	교수	90,000
김진복	동문	550,000	이상락	교수	300,000	안춘순	교수	90,000	우창기	교수	90,000
김현성	동문	55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우창기	교수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노윤곤	동문	550,000	이은주	교수	30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영돈	교수	90,000
문찬석	동문	550,000	이재석	교수	300,000	윤영돈	교수	90,000	이진욱	동문	90,000
박상원	동문	550,000	이재성	동문	300,000	이진욱	동문	90,000	임찬욱	직원	90,000
박윤수	동문	550,000	이종열	교수	300,000	임찬욱	직원	90,000	장인우	교수	90,000
방종걸	동문	550,000	이찬식	교수	300,000	장인우	교수	90,000	조한장	동문	90,000
송영섭	동문	550,000	최근영	동문	300,000	조한장	동문	90,000	한상철	교수	90,000
송운석	동문	550,000	최두원	동문	300,000	한상철	교수	90,000	유혜경	교수	75,000
유재일	동문	550,000	충남집	기업	300,000	유혜경	교수	75,000	임순	교수	75,000
윤광현	동문	550,000	함정호	교수	300,000	임순	교수	75,000	고민정	교원	60,000
이관춘	동문	550,000	강연제	직원	228,000	고민정	교원	60,000	곽용성	직원	60,000
이기수	동문	550,000	김중호	직원	228,000	곽용성	직원	60,000	김영구	교수	60,000
이봉숙	동문	550,000	박노신	직원	228,000	김영구	교수	60,000	김인영	동문	60,000
이은자	동문	550,000	박청남	직원	228,000	김인영	동문	60,000	김태영	직원	60,000
이정식	동문	550,000	배순희	직원	228,000	김태영	직원	60,000	김현진	교수	60,000
이향숙	동문	550,000	소용	직원	228,000	김현진	교수	60,000	김희강	동문	60,000
이후임	동문	550,000	손하연	직원	228,000	김희강	동문	60,000	손정숙	직원	60,000
임영란	동문	550,000	이선식	직원	228,000	손정숙	직원	60,000	양해민	학생	60,000
전병민	동문	550,000	전병준	직원	228,000	양해민	학생	60,000	유현국	동문	60,000
전병원	동문	550,000	정창기	직원	228,000	유현국	동문	60,000	이동엽	동문	60,000
정강월	동문	550,000	최형우	직원	228,000	이동엽	동문	60,000	이효정	동문	60,000
정용범	동문	550,000	한신자	직원	228,000	이효정	동문	60,000	최명중	직원	60,000
조익길	동문	550,000	한재역	직원	228,000	최명중	직원	60,000	최인한	동문	60,000
조주희	동문	550,000	허창렬	직원	228,000	최인한	동문	60,000	김소옥	직원	50,000
최병은	동문	550,000	황의석	직원	228,000	김소옥	직원	50,000	오복자	동문	40,000
최재우	동문	550,000	신동욱	동문	200,000	오복자	동문	40,000	김연자	직원	33,000
최현준	동문	550,000	권기체	직원	150,000	김연자	직원	33,000	김주일	직원	33,000
공용득	직원	506,000	김병훈	동문	150,000	김주일	직원	33,000	박상곤	직원	33,000
최계철	직원	506,000	김숙진	동문	150,000	박상곤	직원	33,000	박형의	직원	33,000
조중휘	교수	4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박형의	직원	33,000	서원형	직원	33,000
김상중	직원	421,000	김진우	동문	150,000	서원형	직원	33,000			